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기원과 전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강상규 지음, 논형, 2019)을 읽고

김태진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I. 들어가며: ‘19세기 동아시아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명제

우선 고백하자면 본인이 이 서평을 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자에게 수업을 듣고, 조교로도 오래 활동하고, 지금 수업에서 저자의 책을 교재로 쓰는 등 저자가 하는 이야기와 지금 내 자신의 생각 자체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본인도, 저자도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공부했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일지 모른다.

또한 이 책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이 나온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나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2019년에 출판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2007년에 나온 책의 재판이다. 게다가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대폭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것이지만 초고 집필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오래되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나 빛이 바랬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 생각의 단초들이 현재까지도 그의 작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다른 어떤 저작들보다 더 중요한 저작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글을 ‘지금’의 관점에서 의미를 평가하고, 그때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의 연구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도, 일반적인 이야기로 상찬하는 서평을 쓰는 것도, 그렇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은

로 끝내기도 무언가 마뜩찮은 면이 있다. 이러한 헛헛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평이란 형식의 글이지만 이 책에 대한 세세한 논의 자체보다는 이 책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 안의 숨겨진 맥락들을 재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19세기 동아시아 패러다임 변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즉 본인 역시도 학부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 온 이야기들이라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학국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관점 자체가 적어도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정치사상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는 언제부터,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에 서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들이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글은 서평을 빙자한 뿌리찾기의 과정일지 모른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지식사회학의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저자 강상규의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것은 저자의 논의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서평은 이를 찾아보기 위한,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서평과는 다소 다른 형식이 될 것이다.

이 책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의 구성은 크게 3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I장 “문명사적 전환기의 중국과 만국공법”, II장 “근대 일본의 대외인식 전환과 만국공법”, III장 “제국 일본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국제론의 전개”이다. 크게는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과정에서 ‘만국공법’이 수용되는 양상으로서 중국과 일본을 I장과 II장을 통해 비교하고, III장에서는 제국 일본의 국제론에 대한 시론적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그림 속에서 보자면 이 책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은 2007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출판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다중거울』(2012)이란 3부작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과 ‘일본’, ‘한반도’, ‘다중거울’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관점 속에서 일본과 한반도를 어떻게 다중거울을 통해 볼 것인가를 논하고자 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19세기' '동아시아' '패러다임'에 주목하는가? '다중거울'을 통해 '일본'과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자 하는 것인가? 우선 저자 본인의 자기 소개를 들어 보자. 이는 자신의 문제의식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그리고 학문적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65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Nationalism과 Nation State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군 제대 후 서양 정치를 공부하고 싶어 유럽에서 잠시 체재하면서, 역으로 '내 안에 있는 동양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대면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에서 석사·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진지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시선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1997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철학보다 사상을 중시하고 다양한 국제정치 연구방법을 권장하면서도 항상 자기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도쿄대학에서 8년간 공부했다. 반만년의 역사를 말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다이내믹한 정치사, 사상사를 통찰하는 전문연구서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일본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 손에 의한 한일 관계사 및 일본정치사회에 대한 학문적 고민과 통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유학생생활 내내 개인적인 고뇌의 원천이 되었다. 도쿄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본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아이덴티티에 관한 고민과 타자(他者)에 대한 인식을 섭렵할 수 있었고, 한일 양국의 얽혀 있는 역사로 인해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깊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현재 방송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소통'과 아울러 우리의 역사를 현재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외교학과에서 갖게 된 내셔널리즘과 주권 국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동양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직면하면서,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싹튼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 유학 당시의 ‘자기중심성’ 경험과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한국 고유의 다이나믹한 정치사, 사상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신 안에 있는 동양, 자기중심성의 관점에서 내셔널리즘과 주권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과 타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역사를 현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 책의 서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9·11 테러로 불길하게 개막한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 이후 우리는 어떠한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의 소용돌이 위에 떠 있는 것은 아닌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정보혁명’으로 표상되는 ‘미래’ 매트릭스의 세계가 언제부턴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문명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창출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에서 뒤진다는 일종의 집단적 무의식이 유명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한다. 대체 변하는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강상규, 2019: 6. 이하 이 책 인용은 쪽수만 표시).

물론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이 책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담겨 있지 않다. 대신 저자는 한 세기 이전에 겪어야 했던 거대한 변환의 현장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즉 19세기 동아시아의 경험을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발전 과정이라는 틀에서 단선적으로 이해해 온 기존의 논의방식과는 달리 상이한 문명 간의 충돌과 ‘패러다임 변환(paradigm shift)’이라는 보다 복합적이고 상호구성적인 틀 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나아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세계가 전개되어 온 맥락을 새롭게 천착해 보려는 저자 나름의 고민(6-7쪽)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저자가 19세기의 변화의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질서 관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권’ 개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만국공법에 주목하는 이유다. 저자가 말하는 거대한 변환의 과정을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중화질서가 현실적으로 붕괴되고,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예의 관념’에 근거한 중화질서로부터 ‘부국강병’과 ‘국가평등 관념’에 입각한 근대 국제질서로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이 중화질서하의 ‘조공 책봉관계’에서 근대 국제질서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만큼 ‘무정부적인 관계’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8쪽).

따라서 당시 새롭게 번역, 수용된 만국공법은 단순히 하나의 책을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sovereign 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함께 조약체계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와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불평등 조약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의 접점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두되고 있는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표상”(8쪽)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문제의 원점으로서 19세기 동아시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에 주목한다. “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환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와 동아시아 주변국 일본이 근대 주권국가의 틀을 넘어 제국으로 질주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연속과 단절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현재 내가 사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아직 끝나지 않은 답변”(10쪽)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우리에게, 적어도 한국에서 외교사, 국제정치학을 배운 사람에게 익숙한 명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으로 19세기/동아시아/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이 시기를 파악하는 논의는 어디에서 시작한 것일까? 그의 작업 속에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재구성해 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II. 장소, 권역, 전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만든 동주 이용희의 학문적 성향이 이후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동주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는 동주에게서 시작한 문제설정이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어떻게 공유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적 차이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본래 내가 품게 된 정치학에의 관심은 우리 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약하나 하는 의문을 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 정치학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 또 내가 그 안에 살고 있게 되는 나라의 운명과 무관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런데 나는 왜 우리 겨레가 이다지도 취약하나 하는 문제를 헤아려보는 동안에, 취약한 것은 다만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 정치, 경제를 재빨리 모방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동양 전체가 그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알려면 불가부득 구주에서 발단한 근대정치의 성격과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구주 정치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의 연구는 곧 우리의 현상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용희, 1955[2018]: 4-5).

이를 앞에서 본 저자의 자기소개말과 겹쳐 읽어 보면 많이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와 동주는 왜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자신의 국제정치학을 규정하려는 문제의식에 사로잡히는가? 이는 식민지 이후라는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얼핏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이후의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멘탈리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보인다. 물론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국가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자기의 취약함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이해되는 점은 특이하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보편적인 서구의 정치학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는 왜 주권(sovereignty)에 대해서 저자와 동주가 주목하는가에 대한 답과 관련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주권이 국제정치학에서 핵심 개념임은 맞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특징적인 면이 보인다. 결국 동주와 저자 모두 공통된 문제의식하에서 주권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배경과 그것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주권국가 체제의 전파라는 서사 속에서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가 서술된다. 이때 동주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유가 이른바 ‘장소의 논리’다.

또 하나의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 종전의 일반정치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내가 과거에 공부하느라고 읽어온 일반정치학은 항용 일반타당적이라는 개념을 마련하여 유형적으로 국가현상 그리고 정치기능 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 역사적인 국제적 불평등 위에 수립된 민주정체와 그것을 유형화하여 엮어 놓고 일반타당적이라고 일컫는 정치학을, 국제적인 피지배 지역의 학도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공부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까. … 이리하여 나는 종래의 연구 방법을 다시 고치어, 나대로 ‘장소의 논리’라고 부르는 새 견지를 취하게 되었다. 무엇이냐 하면, 정치학이 성취한 일반 유형 그리고 서양의 정치 가치가 개별적 지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이를 일으키며 또 어떠한 ‘권위’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검색하자는 것이었다(이용희, 1955: 5).

위와 같은 『국제정치학원론』에서 장소의 논리는 『일반국제정치학 상』(1962)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정치는 그것이 진정으로 연구되려면 특정한 사회현상을 ‘정치’로 개념화하는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정치 개념에 포함되는 특정한 태도와 의미 부여는 그것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존재하는 특정한 장소를 매개하여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장소’적이라고 불러 둔다. 이 경우 ‘장소(Topos)’는 단순히 고장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가능한 사회적 정형”(이용희, 1962[2017]: 67)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강조는 지금에서 보자면 별 새로울 것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구미식의 정치학이 보편과학으로서 위치를 점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보자면 특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동주는 나, 우리, 겨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권이 공유되는 범위인 장소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매개로 하여, 이

장소가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를 ‘권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즉 “국제정치권은 말하자면 일정한 정치행위의 의미가 보편타당하는 권역(圈域)”으로 “권역 내에 있어서 세력의 경합문제라든가 전쟁과 평화 또 외교와 교섭의 문제에 관하여는 대개 양해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을 정하고, 이 명분 위에 제도화하는 양식을 취하며 심볼과 이데올로기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정치체계는 유교문화권, 회교문화권, 기독교문화권과 같은 국제정치권으로 드러난다. 즉 국제정치권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의미가 통하는 권역이며, 이러한 권역의 존재로 인하여 그 안에서는 정당화의 명분이나 제도와 상징 그리고 이데올로기체계가 구축된다. 각각의 권역은 장소성에 의해 독자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나름의 체계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나오는 작업들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때의 권역은 동주 본인도 밝히고 있듯이 보링거(Wilhelm Worringer)가 말하는 미술사에서의 문화권 이론, 즉 문화가 다르면 미의 성격이 다르고, 미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비로소 한국 미술이 지닌 지역적 성격 내지 민족적 정체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다. 즉 미술사학을 통하여 미술에도 문화권 권역이 있다는 점, 같은 권역 내에서도 지역 문화에 따라 미적 표현과 미적 향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유럽의 르네상스라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차이 나듯, 같은 동양화라도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회화와 조선시대의 회화가 다른 미적 가치를 보여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국제정치학에 원용되어 국제정치에서 권역이론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나, 우리, 겨레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이 장소성에 대한 탐구로 이끌었고, 이는 각각의 다른 의미의 체계로서 권역을 설정하게 했다. 그가 보기에 “군사적 점령이나 단순한 통치·지배가 바로 국제정치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조직, 정치제도, 정치권력이 정치 의식의 밑받침을 얻어 정상화되고 또 합리화되어 정치 행위의 국제 기준으로 침전될 때 비로소 국제정치권은 형성”되는 것이었다.

또 하나 동주의 논의 중의 핵심인 전파이론 역시 이 미술사 논의 안에서 시작

된 권역 논의에서 비롯된다. 그가 말하는 ‘전파’란 중심과 주변 관계의 소통 형태로서, ‘중심’과 ‘주변’은 회화의 재료나 용구, 도구 혹은 기법과 같은 물적 수단이나, ‘아름다움의 유행감’이 전자에서 후자로 전파되는 관계에 있다. 물론 양자 사이에 ‘아름다움의 우열’은 없는 것처럼 ‘주변’은 지리 문화적으로 ‘변경(邊境)’과 ‘절역(絕域)’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들 주변은 중심에 대해 ‘해바라기 현상’과 같은 문화적·정치적 사대(事大)의 아이덴티티를 영위하기도 하지만 ‘탈권역(脫圈)’과 같은 문화적/정치적 일탈의 자의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전파’는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루어지지만, 역의 경우도 있으며 주로 동주에게 전파는 권역 내에서의 행위가 강조될 뿐, 권역 사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독자들은 눈치 챘으리라 생각되는데, 전파의 성질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자 강상규 역시 동주가 설정해 놓은 문제의식과 장소, 권역, 전파 이론의 직·간접적 세례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동주 전집 발간 작업에 참여하여 동주의 정치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저자가 보기에 동주의 학문은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시작되어 서구중심주의, 구미중심주의적 발상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과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떠한 정치 관념에 포함된 특정한 태도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립하고 형성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시공간’을 반드시 매개로 삼아 문제를 살피는 방식으로서 장(場, Topos) 혹은 장소의 논리를 설명했다는 것이다(강상규, 2017: 263-269).

저자는 동주의 장소성이라는 논리를 통해 다른 시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박제화된 사고를 탈피하고 생생한 현장감을 확보하려면 이질적인 세계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준’을 특정한 시공간의 문맥에서 추(道)체험하는 자세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때 저자가 말하는 기준(standard)이란 주권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환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동주의 정치학을 평가하면서 동주 정치학의 매력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동주의 문제의식에서 찾는다. 또한, 동주의 정치학은 하나의 상황이 어떤 ‘계기’가 되어 다른 상황, 다른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전체상을 역동적으로 그려 내는 힘이 뛰어나다는 점을 주목한다. 동주의 정치학 혹

은 국제정치학은 근대국가와 주권국가 그리고 민족국가적 발상의 속성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러한 지평의 저편을 생각해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강상규, 2017: 276-277). 이는 동주의 학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여 주는 저자 자신의 학문적 지향성일 것이다.

III. 세계관의 충돌, 만국공법, 개념사

그러나 단순히 현장감 내지 종합적 안목에서 동주의 학문이 평가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이러한 동주의 문제의식이 이후 개념사라는 분야로 확장된 것이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의 특징 중 하나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동국은 한국 개념사의 특징으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개념사 연구의 시작과 전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실주의로 대표되는 주류 국제정치학이 개념사 분야와 연관을 맺을 내적 필연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다른 나라의 개념사 연구 사례에 있어서 국제정치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개념사 연구에서 국제정치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특이하다(강동국, 2014: 37).

그리고 이때 두 학문 분야인 개념사와 국제정치학을 매개하고 있는 것이 주권 개념이다. 실제로 이 책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역시 만국공법의 변역사를 통한 일종의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주권의 개념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념사 연구의 선구적 작업으로서 김용구의 이름과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이용희의 논의 속에서 ‘장소’, ‘권역’, ‘전파’를 핵심적인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면, 김용구의 논의에서 이제 ‘세계관’과 ‘충돌’이라는 관점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된다. 김용구는 외교사를 “본질적으로 여러 문명권들의 충돌”로 파악하고, “문명권에 내재해 있는 세계관의 충돌이며 이런 세계관의 본질을 그들 외교 문서 속에서 추출하려는 학문”으로서 외교사를 규정한다. 그리고 이는 “주변 지역의 자기 상실을 극복하는 길”이자 “한반도에 대한 열강들의 ‘정신 구조’를 규명”하는 일로 이야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외교사 서술의 분석 단위를 국가로 보되 그 단위의 ‘정신 구조’를 형성한 문명권의 존재를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정신 구조’의 본질이 열강의 외교 문서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사는 열강의 외교 문서에 숨어 있는 대외 인식에 관한 ‘정신 구조’를 분석하는 학문 분과다(김용구, 2002: 40).

동주의 ‘권역’이라는 개념은 보다 구체화되어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문명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며, 이를 외교사의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김용구의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1997), 『세계관 충돌의 한말 외교사』(2002)의 책제목이 보여 주듯 이때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세계관’이 된다. 동주에게 국제정치권이 기본적으로 행위의 의미가 통하는 권역이며, 정당화의 명분이나 제도와 상징 그리고 이데올로기체제의 의미망이 권역이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하게 김용구에게 있어 국제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공통된 가치체계, 정치적 공감, 그리고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통된 인식 태도가 ‘국제사회’의 ‘세계관’이라 정의된다.

나는 이 저서에서 ‘세계관’이란 용어를 다른 차원에서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장소(topos)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국제사회들이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을 나는 ‘비교국제관계사 연구 시리즈 발간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특정한 국제사회가 존속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다른 국제사회들에 대한, 또는 외부세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태도의 존재라고 열거하였다. … 국제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곳에는 공통된 가치체계, 정치적 공감, 그리고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태도를 그 ‘국제사회’의 ‘세계관’이라고 하고 그런 ‘세계관’이 정형화된 형태를 그 국제사회의 법 체계라고 나는 일단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국제사회가 어떠한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법 체계의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태도도 크게 다를 수 있다(김용구, 1997: 14-15).

그러나 큰 차이는 동주가 이야기했던 국제정치권역 내외의 전파가 이제 김용구의 작업에서 국제사회 사이에서, 그중에서도 각 국제사회가 갖는 세계관 사이에서 충돌한다는 핵심적 가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강동국, 2014: 54).

그렇다면 이때 ‘충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서양의 학문을 처음 만나 갈등하고 고민한 19세기적인 과제들이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 년이 지난 19세기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서 서양의 국제정치학이나 국제법이 중국과 조선에 언제,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또 그 전파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굴절되었는지를 따져 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동양과 서양의 이질적인 세계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여러 국제정치적인 문제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법’과 ‘예’의 충돌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19세기 중국과 조선이 안고 있었던 역사적 과제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만국공법은 이 충돌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며, 김용구가 개념사 시리즈 첫 권으로 『만국공법』(2008)을 선택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는 『만국공법』에서 “충돌은 이질 문명권 개념들의 만남이어서 저항, 오해, 굴절, 그리고 선택이 동반된다. 한 문명권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들의 전이(transfer) 현상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비유럽 지역, 특히 사대 질서의 천하에 속했던 지역에서는 여러 장소의 개념들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유럽과는 판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서문에서 그가 광물학 용어인 가정(假晶, pseudomorphosis), 즉 광물이 그 내부구조에 따른 본래의 결정형과는 다른 결정형을 나타내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점은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 현상이 두드러져 외래 개념에 대한 저항과 오해가 강렬하고, 이미 지켜 온 개념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오지(奧地)’라는 문제의식을 그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생각하는 개념사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준다.

‘가정’과 ‘오지’, ‘세계관’의 ‘충돌’로서 국제법의 수용사와 19세기 동아시아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저자 강상규 역시 이어받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작업에서 제국으로서의 중화의 해체와 근대적 주권국가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그 너머를 사유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IV. 패러다임, 변환, 다중거울

권역에서 세계관으로, 전파에서 충돌이 동주에서 김용구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세계관이 패러다임으로, 충돌이 변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강상규의 작업에 의미가 있다. 물론 이렇게 단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교학과 출신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 사이에는 공유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했다거나, 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저작에서 ‘패러다임’과 ‘변환’이란 말이 누차 강조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¹ 이를 통해 저자는 세계관의 충돌로서의 관점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흐름들을 미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과정으로서 추적한다. 저자의 작업이 빛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때 ‘패러다임’이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이는 동주가 이야기하는 ‘권역’의 논리, 김용구가 이야기하는 ‘세계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패러다임이란 말은 이미 널리 통용되어 꼭 엄밀한 의미의 학술적 용어로서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란 말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패러다임이란 말의 사용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쿤에게서도 패러다임이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쿤에게 패러다임이란 법칙들과 이론들, 모형들, 표준들, 그리고 (이론적이고 도구적인) 방법들, 모호한 직관들,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형이상학적 믿음들(혹은 선입견들)을 포함하여, 과학 발전에서 나타나는 어떤 범위의 인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때 패러다임이란 말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용어(blanket term)’라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즉,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결코 쉽게 파악할 수 없을

¹ 저자는 어느 연구모임에서 ‘패러다임 변환’에서 패러다임과 변환(transformation)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시기를 보면서, 내부에서 변화하려는 힘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힘이 상충하고 얽혀 돌아가기 때문에, 백 년 동안의 변화가 급격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패러다임 쉬프트(shift)란 말을 쓰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듯이 명확하게 transformation과 shift 사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만큼 모호하고 애매한 용어가 되고, 너무 신비스러워서 설명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될 때까지 그 용어의 의미를 부풀려야만 패러다임이란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유로 쿤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 과학사에서도 이러저러한 비판들이 존재해 왔다.²

물론 패러다임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직관적인 효과는 있다. 어떤 변화의 시기에 새롭게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통 요소를 ‘패러다임’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있는가, 혹 이득이 있다면 그런 식의 지칭이 야기할 혼란 때문에 그 이득이 상쇄되지는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서 19세기 동아시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우리들을 일종의 오해로 이끌어 가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할 때 패러다임이 단순히 용어 차용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성을 설정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쿤이 이야기하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어떠한 일방향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물론 저자 역시도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발전과정이라는 단선론적 이해를 넘은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방식”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며 일방향적 구조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러다임 쉬프트란 말이 갖는 애매모호함 때문에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충돌과정에서의 승자와 패자 사이의 역사로서 읽힐 위험성을 항상 내포한다.

결국 여기서 저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패러다임이란 김용구가 이야기하는 세계관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김용구가 세계관의 충돌에서 작업했던 바를 강상규의 패러다임 충돌이라는 말로 바꿔 불러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김용구의 작업에서도 세계관이라는 포괄적 용어으로써 설명 가능한 것들을 모두 넘어설 때, 세계관의 충돌에서 패러다임의 충돌 내지 변환으로 나갈 때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진다.

왜냐하면 쿤에게 적용되는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비판적 질문들은 동일하게

² 패러다임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는 조인래(1997)를 참조.

국제정치학을, 19세기 동아시아를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상정하는 서사에도 동일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측정할 기준은 있는가? 패러다임이란 선형적으로 어떤 이상적인 타입으로서 존재하는 것인가? 패러다임이라 할 때 이는 누구의 패러다임인가?

보다 중요한 문제는 패러다임은 왜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쿤에게 서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론, 명제로서는 바뀌어 가는 패러다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고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질문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들을 양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면 패러다임은 전환하는 것인가? 혹은 권력에 의해 패러다임은 강제로 변해 가는 것인가?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때의 매력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쿤의 용어인 ‘정상적’ 과학과 ‘혁명적’ 과학 사이의 구분을 전통질서와 근대질서로 쉽게 대별할 수 없다. 이쪽(중화질서)도 저쪽(근대 국제질서)도 이렇게 대비되는 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패러다임의 스펙트럼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패러다임들 사이의 양립불가능성을 가정하는 문제로서 충돌과 부적응 혹은 적응의 문제로서 볼 수만도 없다. 이는 19세기 경험을 지금의 근대와 근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변화로 등치시켜 이해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 즉 패러다임 내지 변환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것도 별로 새롭다거나 유효한 질문거리가 아닐지 모른다. 패러다임이란 말 자체가 저자의 개념정의를 통해서 새롭게 의미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변환으로서 19세기 동아시아를 보았을 때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어쩌면 다소 밋밋한 이야기로 끝맺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저자가 사용하는 패러다임 변환의 비유로서 가재의 탈피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재는 왜 탈피를 하는 것인가.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문제는 가재의 몸이 단단한 껍질 속에서 성장한 것에 있다. 이제껏 나를 보호해 주던 껍질이 어느 순간부터 내 몸에 너무 작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재에게 탈피는 운명이다. ... 가재의 몸이 내용이라면 가재의 껍질은 형식이다. 내용과 형식이 서로 잘 조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커져 가는 데 있다. 그러나 기존의 껍질은 이미 너무나 견고한 것이어서 달라진 몸, 곧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몸이 커져 감에 따라 내용과 형식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 모순이 심화되면, 달라진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 곧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환(transformaiton)이다(강상규, 2008: 6-7).

여기서 가재의 기존의 껍질은 이전의 패러다임, 즉 전통의 패러다임이고 탈피란 그것은 넘어서는 것으로 묘사된다. 가재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가재는 여러 차례 탈피를 해야 하는데 그때의 핵심은 가재의 새 껍질이 유연하고 신축적이라는 데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가재를 비롯한 갑각류에게 탈피가 숙명이듯, 인간의 삶이나 역사에서 크고 작은 변환의 상황은 불가피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변환의 상황은 내부의 변화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변환의 동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재의 몸과 껍질의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모순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중층적인 관계는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환, 나아가 살아 숨 쉬는 한반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저자가 패러다임의 변환을 통해 내리는 일종의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가재의 탈피가 주는 명징한 이미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남는다. 이는 서평 도서인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에서 중국은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에 주목하지 못하고, 국제법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근대적 국제질서에 ‘임기응변’적으로 ‘이이제이’적으로 접근했던 반면,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했다는 식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서사에 적용된다. 역사적 변화에 대한 주체들의 반응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중국과 대비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자세와 대비되어 묘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린 자세는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한 번 저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자면 이때 필요한 것이 다중거울일 것이다. 저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 개의 거울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각각의

거울들은 어떤 측면을 보다 잘 보여 주기 위하여 주변의 상황을 과장 혹은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 준다. 각각의 거울들은 모두 유용한 것이지만,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충분하거나 완벽하게 주변을 비춰 주지는 못한다. 인문사회과학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론은 결국 하나의 ‘보는 눈’ 즉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19세기 동아시아를 보는 데도, 21세기 동아시아를 보는 데도 이를 넘어 다중 거울을 활용하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강상규, 2012: 216). 그러나 이때 당위론적으로 다중거울이라는 관점이 필요함은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나, 어떻게 다중거울 혹은 가재의 탈피에서 보이는 열린 자세가 가능할 수 있는지는 풀리지 않은 채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V.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국적’ 국제정치학

우리는 19세기 동아시아의 정치외교사를 볼 때 앞서 보아 온 서사구조로서 읽는 방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 자체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19세기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환이란 동아시아 전통국가들의 ‘무대’가 예의 관계에 입각한 ‘천하질서’에서 상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 간의 관계, 즉 ‘근대 국제질서’로 변화해 간 것을 지칭한다. 무정부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무대 환경에서는 덕치나 예치, 왕도정치, 사대자소와 같은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부국과 강병, 균세와 자강의 능력이 보다 중시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배우들은 무대 밖으로 밀려났다. 19세기 우리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의 격랑을 지혜롭게 넘지 못했다. 우리는 연기력 부족으로 19세기 변화된 새로운 무대에서 퇴출당하였고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멀리서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어서 20세기 전반 한반도는 주체의 상실과 함께 맞이한 식민지 체험과 공공의식의 심각한 왜곡, 강렬하고 배타적인 저항 민족주의의 탄생과 전개, 국토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10쪽).

그렇다면 19세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무대, 연기, 배우들이 변하는 패러다

임의 전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9세기 유길준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21세기 유길준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를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열린 자세로, 준비를 잘 한다고 해서 대처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얻게 되는 통찰력은 동시에 우리에게 더 많은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의 일면을 보여 주지만, 또 하나 남게 되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 여기에서 국제정치학을 하는 의미를 다시 묻게끔 한다. 그렇다면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는 표현은 자기모순이에요. 국제정치학은 지구의 다양한 샤프터에서 벌어지는 삶이 부딪히는 밖의 문제들을 풀려는 노력이에요. 그것을 굳이 ‘한국적 국제정치학’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 당면한 국제 정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국제정치학과 내가 한국에서 가르치는 국제정치학은 꿈, 삶, 삶, 함의 시각에서 보면 같고도 달라요. 지구, 아태, 한반도의 복합 공간에 펼쳐진 안보, 반영, 문화, 생태, 지식, 공치의 복합 무대에서 벌어지는 복합 연기를 함께 분석하지만 복합의 내용이 다르죠.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덤벼들기보다는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어보고자 노력하면 돼요. 내 삶에서 국제정치가 고민스럽지 않으면 굳이 국제정치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른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국제정치가 나의 관심을 절실하게 끌지 못하는데도 단지 경쟁 때문에 국제정치학 공부를 시작하면 교과서 수준 이상의 본격적인 국제정치학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대신에 내 관심을 끄는 문제를 제대로 만나면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해답은 남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죠(하영선, 2019: 288-490).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란 한국이 당면한 국제 정치 문제를, 한국을 둘러싼 복합적 차원에서 풀어 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서구의 이론틀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지금, 여기, 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선 논의들에서 보아 왔듯이 한국적이라는 장소성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라는 권역, 세

계관,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이를 일종의 충돌 내지 변환, 복합의 관점에서 보는 시도야말로 현재 자신이, 그리고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특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의 작업은 이 연속성 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동주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동주는 국제정치학자만이 아니라 미술사가로도 유명하며 저작을 남기고 있다. 그가 전통적 미술에서 스스로 감식안을 배우고, 제국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미학적 관점을 습득하고, 서양 미술의 공부를 통한 이론화를 거쳐, 이를 종합함으로써 한국적인 ‘미’를 보는 눈을 고안한 점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지 모른다.

미술사학은 결국 이론의 전개일 수밖에 없고 개념체계화의 작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미술사는 기본적으로 기술입니다. 감성의 대상이라고 오래 전해 오는 작품, 정감이 작동하는 감흥이 어떻게 이론의 대상으로 변신하고 기술로서 감흥의 일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왜 ‘사(史)’일까요. 본래 ‘사’를 붙이는 이유는 미술을 역사적 현상으로 또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 역사에는 ‘동안(其間)’이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서 미술사나 미술사학은 동안에 결박돼 있는 미감, 곧 미의 기준과 감흥의 세계를 다루는 것인데, 미술사학은 왕왕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을 생각하는 수도 있으나 그것은 개념 체계의 필연성이나 중국에서와 같이 표현의 관습인 것이지 학문의 성질상 시공에 잡히게 마련입니다. 이 까닭에 앞서 다룬 감흥이나, 그것의 외재화로서의 미 기준 같은 것도 요컨대 ‘동안’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미술사나 미술사학은 작품 위에 설 수밖에 없고 작가도 작품을 통해서 문제가 됩니다. 작품이 문제의 근원입니다(이동주, 1995[2017]: 55).

동주는 실증주의 연구를 표방하는 미술사학이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는 이유, 즉 미술 작품이 왜 우리에게 감흥(感興)을 주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서양 미술과 전혀 다른 계보를 지닌 중국, 한국의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서양에서 발전한 학문인 미술사학의 시각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존과 내재의 가치를 시계열이라는 문맥에 담아서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론으로 실증화하는 일은 미술사학만으로는 힘에 겨운 일이었다. 서양 미술을 보

는 눈과 동양 미술을 보는 눈은 달라야 했으나, 이 2개의 '시감(視感)'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는 여전히 애매하게 남은 문제였다. 동주가 보기에 한국에서 미술의 경우 미술사학은 차치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미술사 작업도 부족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목록화 작업을 토대로 미술사 차원의 저록(著錄)과 감정(鑑定)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미술을 보는 '감식안'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옥창준, 2017: 123).

물론 작품을 보는 감식안을 키우는 것은 말처럼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 방법조차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미술사에서 저록과 감정 작업을 통해 감식안을 기를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저자의 작업은 외교사, 정치사상사에서의 저록과 감정 작업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앞으로의 저자의 감식안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고일: 2021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참고문헌

- 강상규. 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논형.
- _____. 2012.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다중거울』. 논형.
- _____. 2017. “근대 민족주의와 한국외교사: 『한국민족주의』에 나타난 이용희의 민족주의론과 한국외교사론.” 민병원·조인수 외 지음. 『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고양: 연암서가.
- _____. 2019.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 강동국. 2014. 「한국 국제정치학과 개념사: 매개항 '문명'의 방법론적 재구축」. 『개념과 소통』 제13호, 35-86.
-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 나남.
- _____. 2002. 『외교사란 무엇인가』. 인천: 원.
- 조인래. 1997. 『균의 주제들: 비판과 대응』. 이대출판부.
- 옥창준. 2017. “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 『사이間SAI』 제

22호, 89-131.

이용희. 1955[2018]. 『동주 이용희 전집 1 국제정치학원론』. 고양: 연암서가.

_____. 1962[2017]. 『동주 이용희 전집 3. 일반국제정치학 상』. 고양: 연암서가.

이동주. 1995[2017]. “미술사와 미술사학: 나의 한국 전통회화 연구와 관련하여.” 『동주 이용희 전집 8. 우리나라의 옛그림』. 고양: 연암서가.

하영선. 2019. 『사랑의 세계정치』. 한울아카데미.

